

연중 제32주일

기도서 474면 (B해)

제1독서 : I 열왕 17. 10-16

제2독서 : 히 브 9. 24-28

복 음 : 마르코 12. 38-44

# 술정이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  
을 현금궤에 넣었다”  
(마르코 13. 43).

## 강 론

## 소 리

## 봉헌과 예산 편성

김 병엽 신부/팔마 주임

연말이 다가오면 지나간 한해를 결산하면서 다음 해는 어떻게 할까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짜보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사목과 직결된 예산편성이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건전한 예산이 뒷바침될 때 건전한 사목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건전한 예산이란 긴축예산이나 비대예산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 먼저 긴축예산은 곁으로 보기에는 검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비합리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긴축예산이란 말로써 자칫 구두쇠의 봉헌정신을 조장시킬 수도 있고 긴축예산 뒤에 도사리고 있는 특별 현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추나무 연결리듯하는 크고 작은 특별현금을 전개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사순절동안 열심히 금연을 했다가 사순절이 끝난 다음 줄남배를 피웠더니 하늘이 노랗더라는 극기 체험담을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다. 긴축 예산을 실행한 다음 해에 평창예산을 세운다면 모양도 좋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비대예산편성의 경우이다. 비대예산편성은 어쩌면 긴축예산편성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예산편성은 보다 나은 사목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본당신부나 사목위원의 후한마음(?)에 만족성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 만족성을 채우기 위해 자칫 과부의 봉헌정신을 맹자한 남용의 우를 범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또 이 후한마음의 만족성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경고한 바리사이파 울사(평신도 울사)나 사두가이파 울사(제관울사)나 애세네파 울사(꿈란 수도원 울사)로 변신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15년 전의 일이었다. 사업을 하던 한 교우가 채무관계로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내게 찾아 왔었다. 사연인즉 모든 것을 정리하고나니 천 오백만 원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중 구백만 원은 자기가 쓰고 육백만 원은 신부님께 드릴테니 필요한 본당사업에 써달라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감사해야 할 사건이었다. 이런 경우 상례적으로는 술정이에 한 번 알려주고 사용하면 될 것이다.

본당 예산편성이 집행이나 관항목을 채우기에 앞서 보다 사목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예산이어야 함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탓해본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보다 잘해보리라 다짐해 본다.

## 멀고 가까운 이웃

‘5공비리, 전두환, 이순자, 언론대학살…’ 연일 신문지면을 가득 채우는 이런 활자 틈새에 숨어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있다.

굶주림 때문에 빼만 앙상히 남은 기아선상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그 사진 밑에는 짧막한 해설이 있다. 수단 아베이 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60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훌릴 눈물조차 없다고 ….

해외토론회를 전한다. 스웨덴에서는 동물복지법이라는 것이 생겨나 소들도 푸른 초원을 누비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고 개도 목에 줄을 걸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둘 다 우리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천 명의 어린이들이 점심을 굶고 있다. 또 누구는 몇 천억 원을 해먹고 병든 소와 수입고추를 땅에 파묻지 않았는가?

멀리 검은 대륙에서 電送돼 우리 앞에 놓인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눈초리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응답할 것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동안 우리는 배불리 먹고 마시고 춤추었다고 말할 것인가. 우리의 곡식창고는 가득 차지만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눈이 시리도록 맑게 개인 가을 하늘에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어린이들의 눈망울과 점심을 굶어 키운 우리 어린이들의 눈망울이 한데 겹치는 것은 왜일까?

우리 주변에서 교회 섭자가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또한 밤중에는 네온빛으로까지 반짝이는데 ….

## 술정이 산책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위하여…

## 「새 생명 - 이는 죽음이란 나무의 열매이다」

한국 교회는 11月 2日, 위령의 날이 끼어있는 이 달을 위령 성월로 제정하고 이어 먼저 세상을 떠난 선조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저물어가는 한 해와, 죽음을 나뒹구는 들녘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떠나야 할 자신의 모습을 깊은 눈길로 응시하고 묵상토록 한다. 이러한 교회의 의향대로 이 한 달, 죽음을 묵상하며 보낸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마치 수평선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기기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수평선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인 것이다. 단지 나의 능력으로는 볼 수 없는 것 뿐이다. 죽음도 이처럼 우리가 인지(認知) 할 수 있는 마지막이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삶의 첫 시작인 것이다. 그런데 그 시작은 현재의 삶과 동떨어진 시작이 아니고 현재의 이 삶에 뿌리를 박고 이루어지는 시작이다. 즉 현재의 이 삶은 죽은 후의 새 삶의 기초인 것이다.

또한 죽음은 결코 느닷없이 일어나는 한 순간의 사건이 아

니다. 이는 6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꾸준히 준비되고 계획되어진 사건이다. 결코 예고없이 갑자기 닥치는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이를 먹으니 예전같지 않아!” 하며 하루 하루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즉, 하루 하루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느낀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없이 매일 매일 죽어가고 있다. 10년을 살았다 함은 10년을 죽었다는 얘기다. 많이 살았다 함은 많이 죽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죽음은 먼 훗날 닥치는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 훗날의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의 죽음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매 순간 순간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 할 때, 이 죽음의 끝인 마지막 죽음이 의미있는 죽음이 되며 새 생명을 임태한 죽음이 된다. 새 생명 — 이는 죽음이란 나무의 열매이다. 갑자기 맺는 열매가 어디 있는가!



### 성서와 함께

## 25. 성서시대의 역사(G) : 왕국의 분열

이 시기는 솔로몬의 죽음에서부터 북왕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200여년 동안이다. 이 기간의 역사는 열왕 전 12장 - 열왕 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2명의 남쪽 유다 왕들과 19명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치적을 전해주고 있다. 역대 하 10-28장도 같은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나 오직 저자 자신에게 흥미있는 그것도 유다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은 즉시 남북으로 분열되고 만다. 북쪽의 지파들은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출신들만 우대했던 것이다. 마침내 북쪽 12지파들은 단결하여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후계자인 르호보암에 대항하여 왕으로 추대한다 (열왕 전 12장).

이 기간 동안 남북을 통틀어 히브리인들의 공통된 적은 시리아와 아씨리아였다. 특별히 벤하단과 하겔 치하의 시리아는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 끊임없는 위협을 가해왔고 급기야 BC 720년 아씨리아가 북쪽 왕국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했다.

북왕국의 왕들 가운데 적어도 네 이름이 거론될 필요가 있다. 오드리왕은 왕국에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이세벨의 남편 아합왕은 우상숭배 때문에 엘리아 예언자와

숙명적인 적대관계를 맺었지만 시리아의 벤하단을 굴복시켜 아씨리아를 거스려 동맹세력을 형성하였다. 예후는 아마도 아훼께 대한 충성으로 인하여 엘리사 예언자에게 왕으로 추대된 듯 싶은데 하지만 자기방식의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지나치게 사람들을 살상하였다. (열왕 후 10, 18-31). 여로보암 2세는 시리아에게 빼았긴 영토를 재탈환했고 왕국이 멸망하기 이삼십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에 최대의 전성기를 가져다 주었다.

남쪽 유다왕국의 역사는 북쪽의 그것에 비해 매우 단조로웠다. 이 시대의 유다왕들 중 우찌야와 아하즈가 가장 유명했다. 열왕 후 15, 37에 기록된 비극적인 사건은 저 유명한 이사 7, 14의 배경을 이룬다.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시리아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아씨리아와 싸우는 마당에 유다의 아하즈를 끌어들이려 했으나 듣지 않자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더불어 유다를 공략하였다. 그러자 아하즈는 아씨리아를 불러들여 동쪽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다.

여기서 우리는 분열된 약소민족이 외세의 간섭에 의해서 어떻게 붕괴되는지 그 참담한 과정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현실을 반성케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인테리어 커텐 · 씰키  
카피트 · 무대막 · 암막  
**롯데 커텐**  
설창호 (대건아드레아)  
전주시 중앙동 (관통로·객사옆 2층)  
**☎ 86-4884**

흔수전문 · 커텐 · 약흔복  
**서울주단**  
김 완준 (안토니오)  
박 윤화 (베로니카)  
중앙성당 정문앞  
**☎ 3-0453, 77-5095**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 범석 (꼴비)  
전주시 덕진동 1 가 1262-16  
전북대 앞 덕진성당 옆  
**☎ 72-2665**  
**75-3533**

산데리아 · 스 텐 드 · 조명기구  
전기재료 · 각종전기공사 · 누전공사  
**KD 대광조명전기**  
대표 김 남주 (레미지오)  
이리 중앙시장거리 신화야국 옆  
**☎ (0653) 52-0569**

# 교구소식

“초대합니다” 제2회 그레고리오 음악제

- 일시 : 6일(오늘) 오후3시, 7시30분 · 장소 : 전북학생회관
- 주관 : 천주교 전주교구 · 주최 : 전주교구 성가대 연합회

† 주여 :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오스트리아 인스브록에 유학중이던 김 호연(안토니오, 남원본당, 89년 1월 부제품 예정) 신학생이 등반사고로 10월 30일경 사망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옵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사제피정 : 7일~11일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피정기간중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중화산동 성당 명칭이 효자2성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7일 오전10시30분 사회복지회관
4. 본당 애령회 회장단 피정의 건 : 7일(월) 장소 - 가톨릭센타 3층 회의실 회비 - 일인당 5,000원 대상 - 본당 애령회장단 애령회 실무자
5. 전주교구 여성 연합회 1일피정 : 14일 오전9시30분 장소 - 가톨릭 센타 대상 - 각 본당 여성부장, 여성단체장 회비 3,000원
6. 초등부 교리교사 성탄연수회 : 13일(일) 오전9시~오후6시 가톨릭센타
7. 중·고생 Gen 성가 경연대회 : 13일(일) 오후1시~6시 노송성당
8. 텔클라 성소모임 : 오늘 오후2시, 장소 - 성바오로 서원2층
9.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 7일 오후6시30분 장소 - 가톨릭 센타 성당
10. 자연가족 계획 교육 : 8월 22일(매월 둘째, 네째 화요일) 오전10~12시(임신을 원하거나 피임을 원하시는 분) 가톨릭센타 행복한 가정운동(85-5098)
11. 제1회 지.오.세 광주구 친선체육대회 : 6일(일) 오전10시 해성중·고 운동장
12. 어린양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모임 : 13일 1시30분 전동성당에서
13. 영성생활 연구소 특강 : 14일(월) 오후2시~4시 곳-서울가톨릭 회관 7층 대강당 주제 - “죽음과 사별” 강사 - 김중호신부 대상 - 성직자 수도자
14. 까리따스 수녀회 성소자 피정 : 13일 오전10:30 장소 - 서학동 성당 회비 2,000원 준비물 - 미사, 필기도구 복장 - 간편한 복장 및 운동화
15. 한국 외방 선교회 11월 성소모임 : 13일 오후2시~5시 주제 - 바오로의 선교. 장소 - 서울본원 준비물 - 성서, 필기도구 대상 - 고교생, 대학생, 일반(미혼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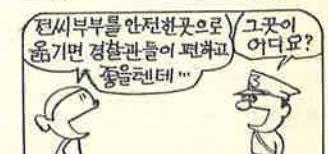
잠깐!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시귀가 생각납니다. 교구 단위로는 처음 마련된 음악제가 열리기 까지는 너무도 긴 시간과 정열을 쏟아야 했습니다.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그같은 시간과 정열과 재력에 비해 무슨 효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러나 성가 그 자체가 기도이며,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만남이 교회이기에, 교회를 이루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영광’이었습니다. 153명의 전 대원이 함께 하지는 못했어도 3개월이란 긴 시간을 거의 매일 함께 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선율에서 ‘젊은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지루했기에 발표회를 마치고 난 헌신한 마음이 더욱 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구 성가대연합회」는 이 발표회만을 위해서 결성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를 시작으로 더욱 뭉쳐 계속 수준 높은 성가를 익힘으로 전주 교구 성가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교구의 제반 행사는 물론, 젊은이가 없어 성가 부르기가 힘든 농촌본당이나, 특수사목지를 지원하고, 성가를 더 잘 부르고 싶어하는 본당 성가대의 활동소가 되어야겠습니다. 뿐 아니라, 초 본당적으로 결성된 이 단체를 통해 전주교구의 젊은이들이 함께 만나는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많은 교우님들의 참여와 격려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을 부담없이 초청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요십이 (796) 김병오



## 의료보험조합 지점병원 신일균신경외과의원

부설 : 물리치료실  
원장 신 일균 (아오스팅)  
윤 귀자 (로사리아)

병원 84-7288 자 8-8417

관통로 전주백화점→다카고 중간

## 전북 의료보험조합지정 김 안 과 의 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 렌즈  
원장 김 호열 (헨리 고)  
전 은주 (베로나)  
전주 코아백화점 앞 중앙성당 앞

☎ 85-3020

## 저온 살균우유 드디어시판!! 한·덴마크유가공(주)

대표 박 선영 (헤레나)

본사공장 : 정읍 32-8891~8  
이리대리점 : 51-5718 (가게)  
51-5715 (주택)

## 한방보약 · 예방의약

용〈元茸〉 九蒸茅 인삼

## 영 세 당 약 국

약사 정 우진 (이시의) 황 신숙 (리브가)

전주시 완산국교 사거리 ☎ 6-6422, 6-5326 ※ 일요일은 휴무

출산준비물, 유아복, 유아용품

## 모 아 방

효자체인점

활 상문 (요 씨)

김 계선 (하이진다)

효자동 서부시장앞, 효자성당앞

☎ 82-2049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회장 · 드레스마충 · 대여

## 최 윤경 (유리안나)

##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종암동 3 가 7-1

☎ 3-2496-2-8653



## 한방보약 · 예방의약

용〈元茸〉 九蒸茅 인삼

## 영 세 당 약 국

약사 정 우진 (이시의) 황 신숙 (리브가)

전주시 완산국교 사거리 ☎ 6-6422, 6-5326 ※ 일요일은 휴무

# □ 삼례·익산지구 본당소식 □

## \* 고산

사제관 73-4019 주임신부 양경배  
수녀원 73-4110 사목회장 고석재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먼저 가신 가족, 친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드립니다.
  - 오늘의 모임 : 공식미사후- 성모영보 꾸리아 회합 저녁8시- 본당 구역 형제회
  - 성당 방석 마련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주교구사제회장 : 7~11일 천호파정의 집. 본당미사 없음니다.
  - 본당 연도대회 : 11월20일 공식미사후 구역공소 모두 참여합니다.
  - 차주모임 : 저녁8시- 공소구역 형제회
- 지난주봉헌금 : 227,650원 □ 교무금 : 332,500원

## \* 금마

사제관 53-7187 주임신부 이덕근  
사무실 53-6244 사목회장 김상용  
수녀원 53-7157

\* 본당신부님 피정 11월7~11일

- 신부님께서 건강하게 피정 잘하고 오시도록 기도 많이 드려 주세요.
- 성모상 견립과 성전정화를 위해 신자분들의 협조와 기도부탁 드립니다.
  - 하느님 말씀을 봉독 합니다.  
창세기37,1- 마르코복음9,1-50
  - 불우이웃돕기 페풀수집  
미사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모임 : 공식미사후에-사목회 목요일 어머니미사후-모니카회
  - 본당성령 쌔미나 : 11월14일(참가비 1,000원) 사무실 신청바람  
(견진자 전원 참석 요망)
- 지난주봉헌금 : □ 교무금 : 205,000원

## \* 삼례

사제관 73-8469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9-2018 사목회장 김율수  
수녀원 9-3196

- 금주의 모임 : 자모회-공식미사후 성모회-밤7:30
  - 본당신부님 피정 : 7월~11월 많은 기도 바랍니다. \*피정기간중 말씀의 전례 있습니다.
  - 성전주변 환경조성사업 작업에 힘을 같이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불사 하여 주세요.
  - 치명자산 성지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 합시다.
  - 교적정리 : 주제판공을 앞두고 거주지에로 교적을 정리 합시다.
  - 금주전례 : 특전-강영만 이영순 공식-고령기 김윤채  
차주전례 : 특전-김광명 양정희 공식-강신일 김신자  
제물봉헌 : 금주-강신일 부부 차주-고령기 부부
- 지난주봉헌금 : 364,120원 □ 교무금 : 278,500원

## \* 여산

사제관 53-5016 주임신부 정천봉  
사무실 사목회장 이삼영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칩니다.

1. 본당 30주년 기념행사
2. 대의원회의 : 행사후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3. 7월~11일까지 평미사 없겠습니다.(신부님 피정관계로)
4. 금주전례 : 독서①(강영환 ②정의철  
봉현-전일구 윤연순 부부
5. 차주전례 : 독서①김태순 ②구정숙  
봉현-김자순 이순임 자매

## \* 용안

사제관 6-2766 주임신부 정태현  
사무실 사목회장 서홍원

- 11월은 위령성월 : 기도서 26쪽  
불쌍한 영혼과 선영들을 위하여 연미사를 봉헌합시다.
  - 교구사제회장 : 7일~11일까지 천호파정의 집. 신부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 88년도 교무금 현황  
교동-68.8% 성치-97% 턱용-90% 중신-80% 석동1구역-  
65% 석동2구역-85.6% 신온-78.5% 법성-76% 송산-88.4%  
교항-73% 성당-51% 난포-84% 두동-73% 제성-17%  
맹산-49% 화장남께서는 교무금 대장을 보시고 미납되신분 방  
문하여 주십시오.
  - 금주전례 : 해설-유용화 독서①나용규 ②김기문  
봉현-정대홍 부부  
차주전례 : 해설-송형식 독서①양종규 ②박양금  
봉현-황민규 부부
- 지난주봉헌금 : 138,690원

## \* 함열

사제관 6-0165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6-0065 사목회장 김종대  
수녀원 6-1539

- 예비자 입교식 : 오늘 공식미사중 모임-공식미사후
  - 시목회 청년회 끼리따스회 : 오늘 공식미사후
  - 사제연례회장 : 7일~11일까지  
\*신부님의 피정을 위한 많은 기도바람. 8일~10일까지 평일미  
사 없음.
  - 나주 기적의 성모상 방문(순례) : 11월 16일 8시 회비5,000원  
도시락 개인자작 접수마감-오늘까지
  - 유아영세 : 11월13일 3시 \*신청서 사무실에 있으니 미리 신청  
하세요.
  - 오늘은 폐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축" 결혼 : 오늘12시 신랑-김재권(이냐시오) 신부-정옥님(마  
리아)
  - 금주전례 : 해설-최영식 진선미 독서①김종대 ②류향자  
차주전례 : 해설-박성범 이정이 독서①박성용 ②최영순
- 지난주봉헌금 : 원 □ 교무금 : 원

## \* 화산

사제관 6-3671 주임신부 김종길  
사무실 사목회장 김상규

- 교구 사제연례회장 : 11월7일(월)~11일(금)까지 신부님을 위하  
여 기도 드립니다.
  - 복자회 : 저녁7시 사무실에서
  - 매일미사 89년도분 새로 신청하실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금주전례 : 첫미사-박준혁부부 공식미사-황명순 유숙자  
차주전례 : 첫미사-김종환부부 공식미사-김상규부부
- 지난주봉헌금 : 147,520원

## \* 활동

사제관 52-2541 주임신부 김순태  
사무실 수녀원 52-7634 사목회장 장현순

- 사목회 월례회의 : 오늘 공식미사후
- 신부님 피정 : 11월7일~11일 무사히 피정을 마칠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3. 성령기도회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평신도주일 : 다음주(2차헌금 있음)
- 가을 판공성사 : 판공전에 본인이 신청한 교무금을 남부 바람.
- 교육관 의자봉헌 : 김영애6개, 마효진 이명 각2개, 서귀임 1개
7. "축" 결혼 : 신랑-황병찬교 신부 이정실(사비나)양 일시-오늘  
12시 신동성당 "축" 결혼 : 신랑-장원일(스테파노)군 신부  
허양순양 일시-나을주 13시 장소-횡동성당
8. 금주전례 : 해설-김용자 독서-김종규 부부  
봉현-문재순 박기순  
차주전례 : 해설-김낙천 독서-김인수 부부  
봉현-김원자 박순희

□ 지난주봉헌금 : 247,370원 □ 교무금 : 162,500원

□ 특별헌금 : 연규증 3만원(차량구입) 천봉순 10일조 헌금, 최영신  
3만원(감사현금) 이명 10일조현금 16,000원